

# 도, 소기업 애로해소 맞춤 지원 추진

### 상시근로자 50명, 매출액 120억원 이하 도내 제조업 분야... 총 24억원 투입 155곳 지원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도내 기업의 절대다수(94.3%)를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지원사업'으로 제조공정시스템 구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및 제품성능 인증 등 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24억원을 투입, 155개 기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상시근로자 50명, 매출액 12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도내 제조업 분

야 소기업이다.

세부적으로 혁신기반 공정개선의 경우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40개 기업,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 1,500만원 15개 기업, 시험분석비용 지원 200만 원 1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기반 공정개선은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생산시간 단축, 비용 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국가공인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투자유치 등 자금 확보를 가능케

해준다. 또한,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에서 소외된 비R&D분야의 영세 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그동안 도내 1,7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은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업과 매출 및 고용 등이 증가하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보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연계 등으로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하여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http://www.jbta.kr>) 알리 및 소식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50인 이하 소기업의 비중이 94%를 차지하는 만큼 소기업은 우리 도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육성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윤종기 상호금융 상무, 농·축협 상임이사 및 전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다짐하는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결의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에는 ▲모든 업무의 중심이 고객임을 명심하고 ▲고객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금융사기피해예방에 큰 힘을 다하고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등 농·축협 고객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겨 있다.

윤종기 상무는 "농·축협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이 농업인과 국민에게 전달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하림 '피오봉사단 8기' 모집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오는 28일까지 '피오봉사단 8기'를 모집한다. 하림 피오봉사단은 하림 임직원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소비자 가족이 함께 환경 보호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봉사단이다. 2014년에 창단해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하림의 대표 CSR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네이처 리더스(Nature's Leaders)'를 컨셉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피오봉사단 8기로 선정되면 4월 중에 하림 익산 본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최신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갖춘 하림 스마트팜토리를 견학하게 된다.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미션도 주어질 예정이다. 밭고 판에 적합한 환경 운동 활동을 실천하고 SNS에 후기를 올리고, 산업폐기물인 양말목으로 티코스터(갑박집)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하림의 동물복지 제품을 활용해 셰프가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 온라인 쿠킹클래스도 계획하고 있다.

하림 피오봉사단 신청은 28일까지 하림 공식 SNS에 링크된 네이버 폼을 통해 하면 된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소비자 가족 중 총 10가족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m](http://www.facebook.com/naturalharim)),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harim\\_natural](http://www.instagram.com/harim_natural)), 블로그([blog.naver.com/harim\\_natural](http://blog.naver.com/harim_natur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읍에 소재한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우리비엔비의 천연돈장케이싱 16t(9,000두분) 유럽 수출을 축하하기 위해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정읍시, 대학, 실용화재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 해빙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 실태 확인

### 전기안전공단, 산지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재난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마쳤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열흘간 한국에너지공단, 학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펼친 이번 안전점검은 태양광과 풍력은 물론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소수력 등 40여개 주요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는 이번 합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마쳤다.

이다.

앞서 김관중 기술이사는 지난 4일 충남 보령 태양광 시설과 서산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 이사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지구 온난화 따른 아열대 채소 소비 확대 위해

### 전북농기원, 정읍 '투이네 베트남 채소농장'에 현장시범포 운영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는 지구온난화와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아열대채소의 소비확대를 위해 정읍시 '투이네 베트남 채소농장'에 현장시범포를 운영한다.

아열대채소 현장시범포에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원을 도입해 특성경쟁을 마치고 선발된 양념, 그린빈, 고수, 공심채 등 19종을 포함, 총 50종의 아열대 채소가 재배된다.

여기에서는 시계절 동안 신선한 아열대채소가 재배되므로 농업인, 소비자, 다문화 단체, 유동종사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

장으로 활용되며, 연구와 생산 그리고 소비가 현장에서 하나로 융합된 먹거리 식생활 장터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아열대채소를 이용해 다양한 식재료의 원료 생산, 다문화 가족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에스니 푸드의 향신료 소재개발 및 피부미용을 위한 입욕제 원료를 생산하여 빠른시일내에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신소득 원료로 자리매김해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에스니 푸드(Ethnic food)란 각 나라의 고유한 음식,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서아시아 등 제 3세계 음식을 의미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정읍시와 연계해 전국 제1의 아열대채소 1번지로 만들 계획으로 정읍시 아열대채소 연구회 원들과 함께 시범포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원예과 아열대작물실 성문호 박사는 "글로벌 식품문화를 선도할 아열대채소에 대한 신선한 식재료를 생산현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읍시 '투이네 베트남 채소농장'

## '우리 축산물 우수성 알린다'

### 농진청 축산과학원, 송훈 셰프 홍보대사 위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박범영)은 기관 연구 성과와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요리 전문가 송훈 씨(시진)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송훈 셰프(요리전문가)는 음식관련 방송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KBS 관촬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송훈 셰프가 평소 국내산 축산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소비 확대에도 앞장서 왔다"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 셰프는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전시 및 행사에 참여해 축산물 소비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



다. 국내 고유 품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송훈 셰프는 재래가축을 활용, 개발된 축산물에 특화된 요리법(레시피) 개발에도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재래품종을 활용한 방송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KBS 관촬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송훈 셰프가 평소 국내산 축산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소비 확대에도 앞장서 왔다"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 셰프는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전시 및 행사에 참여해 축산물 소비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

다. 국내 고유 품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송훈 셰프는 재래가축을 활용, 개발된 축산물에 특화된 요리법(레시피) 개발에도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재래품종을 활용한 방송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KBS 관촬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송훈 셰프가 평소 국내산 축산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소비 확대에도 앞장서 왔다"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 셰프는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전시 및 행사에 참여해 축산물 소비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

다. 국내 고유 품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송훈 셰프는 재래가축을 활용, 개발된 축산물에 특화된 요리법(레시피) 개발에도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재래품종을 활용한 방송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KBS 관촬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송훈 셰프가 평소 국내산 축산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소비 확대에도 앞장서 왔다"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 셰프는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전시 및 행사에 참여해 축산물 소비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

다. 국내 고유 품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송훈 셰프는 재래가축을 활용, 개발된 축산물에 특화된 요리법(레시피) 개발에도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재래품종을 활용한 방송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KBS 관촬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송훈 셰프가 평소 국내산 축산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소비 확대에도 앞장서 왔다"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 셰프는 앞으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전시 및 행사에 참여해 축산물 소비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



전북농협은 8일 한파피해를 입은 김제 광활면 소재 시설감자 재배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 '감자 수확 시 판매지원 약속'

### 전북농협, 한파피해 감자 생육상황 집중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8일 한파피해를 입은 김제 광활면 소재 시설감자 재배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광활면은 지난 1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감자재배 면적 550ha 중 약 180ha(140농가)가 동해를 입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농협에서는 즉각적으로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동해를 입은 농가에 영양제 및 영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가 심한 일부 농가는 재정식을 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생육을 지속

시켰다. 생육지속 농가의 경우 적극적인 영양제 공급과 2, 3월의 좋은 일조 조건 등으로 생육은 지연되었지만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활 감자는 전국 봄 감자의 주산지이나 한파피해로 인해 일부 생산량 감소 및 출하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한파로 인해 힘든 여건 속에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농협에서도 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산물이 재고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시켰다. 생육지속 농가의 경우 적극적인 영양제 공급과 2, 3월의 좋은 일조 조건 등으로 생육은 지연되었지만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활 감자는 전국 봄 감자의 주산지이나 한파피해로 인해 일부 생산량 감소 및 출하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한파로 인해 힘든 여건 속에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농협에서도 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산물이 재고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병원, 신장이식 60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신장이식 수술 600례를 달성했다.

8일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이석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 이모 씨의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이 부분 총 600례의 기록을 달성했다.

600번째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대병원은 1989년 60대 어머니의 신장을 30대 남성에게 이식한 첫 번째 수술 성공 이후 매년 수십 건의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체 이식 381례, 뇌사자 이식 220례 등 총 601례를 시행했다. 특히 2014

년 9월에는 도내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에 성공, 현재까지 총 33건의 혈액형 불일치 신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뛰어난 의술을 드러냈다.

전북대병원은 신장이식 뿐만 아니라 간이식 수술에서도 뛰어난 의술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뇌사자 간이식 성공과 2005년 생체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현재까지 111례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석 센터장은 "600례를 달성하기까지 한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신장이식팀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신장이식 수술 600례를 달성했다.

8일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이석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말기 신장질환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 이모 씨의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이 부분 총 600례의 기록을 달성했다.

600번째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대병원은 1989년 60대 어머니의 신장을 30대 남성에게 이식한 첫 번째 수술 성공 이후 매년 수십 건의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체 이식 381례, 뇌사자 이식 220례 등 총 601례를 시행했다. 특히 2014